



1 홋카이도 3대 온천마을 중 하나인 노보리베츠의 명소 지옥계곡. 2 겨울 일루미네이션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삿포로 오도리 공원과 도시의 심볼 중 하나인 TV탑. 3 1시간 코스로 호수를 일주하는 도야호 유람선과 겨울산 정경. 4 홋카이도의 인기 겨울축제 중 하나로 호수물을 분무해 얼려서 만든 오브제가 매력인 치토세 시코초코 호트 축제.

설국 온천·얼음 도시... 잊지 못할 '겨울 동화'

일본 백경 선정 도야호 설경 일품
하얀 김 내뿜는 노보리베츠 장관
삿포로 눈 축제...올해로 70주년
도심 곳곳에 얼음조각 장식 눈길

요즘같은 겨울철 해외여행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추위를 피해 동남아, 오키나와, 하와이 등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설경과 스키 같은 겨울 고유의 매력을 즐기는 지역으로 가는 여행이다. 예전에는 전자같은 '피한' 여행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요즘은 해외에서 겨울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지난 몇년간 인기 가 크게 올라간 지역이 일본 홋카이도다. 일단 비행시간 3시간 이내여서 여행비용이 높지 않다. 설경같은 겨울풍광이나 스키와 같은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미주나 유럽에서 찾아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미식투어나 온천여행도 즐길 수 있다. 항공편이 적다는 것이 단점이었으나, 지금은 우리 국적 항공사들이 모두 삿포로에 취항할 정도로 편리해졌다.

● 2박 or 3박 일정이 주류
홋카이도는 크기가 남한 면적의 80%에

달할 정도로 크다. 따라서 주말을 끼거나 연휴를 활용한 일본여행의 일반적인 일정인 2박3일이나 3박4일로는 한번에 다 돌아보는 건 불가능하다. 홋카이도는 크게 삿포로가 있는 도중지역, 아사히카와 및 왓카나이가 있는 도북지역, 쿠시로 및 아칸, 시레토코의 도동지역, 하코다테를 중심으로 한 도남지역으로 구분한다. 이중 한국인 여행자들은 많이 가는 지역은 삿포로를 중심으로 하코다테까지 도중과 도남 지역이다. 명품 겨울 정경과 북해 유빙으로 유명한 왓카나이나 쿠시로가 있는 도북과 도동지역은 최소 2~3일 정도는 일정을 추가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 노보리베츠와 도야호, 온천과 겨울호수
도중과 도남 지역의 겨울 명소라면 단연 노보리베츠와 도야호다. 삿포로에서 차로 1시간30분이어서 당일여행으로 많이 가는 데, 하루 정도 투자해 온천여관 등에서 여유있게 1박을 하면 좋다.
도야호는 칼데라 호수로 일본에서 9번째로 크다. 일본 백경 및 세계지오파크에 등록된 자연유산이다. 주변에 우스잔, 쇼와신전등 화산들이 있고 호수 주변에 온천 마을이 있다. 여름철 불꽃놀이가 유명하지만, 겨울에 눈덮인 산들과 호수가 어우러진 모습도 그에 못지않게 매력적이다. 호수

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사이로 전망대, 보리밭에서 응기해 지금도 연기를 뿜는 화산인 쇼와산 등이 인근 관광지다.

도야호에서 차로 1시간 정도가면 나오는 노보리베츠는 홋카이도의 3대 온천마을로 꼽히는 지역이다. 동네는 30분이면 다 돌아볼 정도로 작지만, 온천수의 풍부한 용출량과 수질로 정평이 나 있다. 이곳 명소는 마을 중간의 지옥계곡. 유황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장관이다.

도야호와 노보리베츠 사이에는 '노보리베츠 다테 지다이무라'라는 작은 테마파크가 있다. 에도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일본 서민과 닮아, 사무라이 등의 삶을 볼 수 있는 우리 민속촌 같은 곳이다.

● 홋카이도의 겨울축제 4
삿포로 눈 축제=매년 2월 초에 열린다. 삿포로 도심 오도리 공원과 스스키노 행사장에 설치된 거대한 규모의 눈과 얼음 조각이 핵심이다. 세계3대 축제 중 하나로 불리며 해마다 300만 명이 찾는다. 축제 70주년인 올해는 1월31일부터 2월11일까지 열린다. 한국어를 포함한 10개국어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단, 일본 국내외에서 워낙 많이 찾다 보니 숙박예약이 쉽지 않고 가격도 평소 2배 수준이다.
오타루 눈빛거리 축제=삿포로에서 기차

로 40분,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오타루는 만화 '미스터 초밥왕', 영화 '라브레터'의 무대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도 겨울 축제가 열린다. 대도시 삿포로와 달리 야기 자기하고 고풍스런 건물이 많은 오타루 특색을 살린 축제다.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치토세 시코초코 호트 축제=삿포로에서 1시간 거리인 치토세 시코초코 온천에서 열린다. 시코초 호수 물을 스프링클러로 분사해 얼린 각종 얼음 오브제가 대표 볼거리다. 밤에는 각종 조명까지 더해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축제 중 토, 일요일에는 불꽃놀이도 한다. 1월25일부터 2월17일까지 열린다.

아사히카와 겨울 축제=올해로 60회를 맞았다. 홋카이도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아사히카와에서 열리는 축제에 눈 조각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2월6일부터 11일까지다. 올해 메인조각은 60주년을 기념해 높이 20m, 폭 140m 크기로 나고야 성을 재현했다. 한국의 수원과 자매도시여서 수원 화성 팔달문과 한복을 입은 마스크트 조각상도 만들 예정이다. 인근 아사히카와 동물원에서는 축제 기간 '눈빛 속의 동물원'이라는 테마로 700개 이상의 아이스 캔들을 배치한다.

홋카이도 | oldfield@donga.com

두바이 품은 터키 10일
A380 구간 비즈니스 왕복·ALL 특급호텔
두바이 관광·오리엔트 Express 레스토랑 정찬
2019 (1/27), (2/10, 17, 24) (3/3)
하얀자동차투어 문의: 02-777-6566

롯데월드, 방탈출 VR 콘텐츠 선택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16일 리뉴얼 오픈하는 'VR SPACE'의 새 콘텐츠를 공개했다. VR인 '블랙홀프', '타워태그', '시그널'을 비롯해 방탈출 VR '더 도어', 아케이드형 VR '쥬시팡팡'과 시뮬레이터 VR '레이싱 VR' 등 6종이다. 슈팅VR은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요즘 인기 높은 방탈출 VR은 게임 퍼즐을 푸는 결과에 따라 엔딩이 다르다.

설 연휴 해외여행지로 베트남 인기

하나투어(대표이사 김진국)가 설 연휴 해외여행 수요를 분석한 결과, 동남아, 일본, 중국 등이 87.0%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동남아가 전체의 51.4%를 차지했는데, 이중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이어 태국이 뒤를 이었다. 동남아에 이어 선호한 지역은 일본, 중국 순이었다. 장거리 지역에서는 유럽이 7.4%를 차지했다. 한편, 출발일별로 살펴보면, 연휴 첫날인 2일 출발이 28.7%로 가장 많았다. 김재범 기자

사인검 (四寅劍-四寅斬邪劍)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 등 인(寅) 자가 네 번 겹쳐지는 시간에 맞추어 제작한 보검입니다.



칼날 접쇠도
전장 107cm
칼날 72cm
무게 1.8kg
국내 최초 신주상감 칼집 / 손잡이 어퍼제작
상감 상감

사인검은 중요한 국가 행사를 위해 제작되거나 왕족이나 공이 많은 신하에게 왕이 하사하는 귀한 선물로 제작됩니다. 현재는 귀하신 분의 소장용이나 사업 확장, 개업, 이사를 하시는 귀하신 분들에게 주변의 잡귀를 물리치고 강건을 기원하는 뜻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보검 "1대는 가보요, 2대를 가면 보검이요, 3대를 가면 명검이됨"

大東刀劍 02-434-3303

태진 가정용 노래반주기

업소노래방처럼 우퍼앰프와 스피커 파워풀한 음향효과
★가정에서도 노래방 + 오디오 + 영화감상 가능★



2019년 최신형 월 58,000원

오늘 노래반주기를 사면 앰프+스피커 공짜!!

1. 코러스 제공 / 악보보기 지원
2. 기계음이 아닌 최고의 세션이 직접 연주한 음악
3. 7밴드 이퀄라이저
4. 하울링이 전혀없는 피드백 캔슬러
5. 장음정, 강진, 박상철 등 가수가 실제 부른 육성메들리, 가요무대메들리
6. 신곡업데이트 집에서 간단하게
7. 직접 부른 노래 고품질 녹음 및 전송

♪ 악보, 녹음 지원기능



국내 최대 4만2천곡 (한국가요, 일본노래, 팝송)



전화 070-7725-2333 ※ 24시간 상담환영